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9. 12. 16(월)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	담 당 자	• 과장 장승수, 주무관 : 장재원, 어소희 • ☎ (033) 769-5860, 5867, 5868
보 도 일 시	2019. 12. 17. (화)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.	

원주국토청, 안전·품질 우선 건설문화 확산을 위한 중·소규모 건설현장 컨설팅 실시

- 55개 현장 안전 및 품질 미흡사항 403건 개선 안내 -
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박승기)은 지난 3월부터 품질·안전을 우선하는 건설문화 확산을 위해 “중·소규모 건설현장 품질·안전 컨설팅”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발표했다.
 - 컨설팅은 품질·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중·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① 발주청 관계자 품질·안전 교육, ② 현장방문지도와 SNS를 활용한 모니터링, ③ 지도사항 이행실태 확인 등 현장별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.
 - 특히, 금년도에는 18개 시·군별 발주청이 품질과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발주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.
- 컨설팅 시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18개 시·군 공사관리관 및 민간건설 인허가 담당자 171명을 대상으로 “권역별 찾아가는 품질·안전교육”을 3차례에 걸쳐 시행했다.
 - * 권역별 교육 현황 : 영서북부(3.12), 영동(3.15), 영서남부(3.20)
- 또한, 발주청 등에서 컨설팅을 신청한 55개 건설현장을 안전보건공단 등 건설안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현장지도(3~7월)로 안전·품질 관련 미흡사항 40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도했다.

○ 현장방문 지도 후에도 SNS(Daum 카페)를 활용(7~9월, 3개월)하여 각 현장의 개선결과 등 기술적 내용을 현장방문자들과 공유하고, 쌍방향 소통으로 정보를 공유했다.

- 9월까지 모니터링 결과,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34개 현장에 대하여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을 재방문(10~11월, 2개월)하여 현장관계자 애로사항을 확인하고, 발주기관 관계자를 참여시켜 개선필요 사항 405건 중 402건(99%이상)을 완료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.

□ 컨설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설문 응답자 대다수가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 우선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컨설팅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, 내년에는 대상 건설현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□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“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원지역 건설 재해율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
○ “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 등 지도·교육, 기술정보 공유를 병행하여 강원지역 건설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장재원 주무관(033-769-58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